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149 (07671) •전화 : 02-4977-888 •전송 : 02-4970-444 •총 12쪽  
•날짜 : 2025년 3월 7일(금) •담당 : 조현제 여성국장(010-9903-6861)

## 3.8 세계여성의날 정신계승 〈여성노동자\_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승무원에게\_운동화를!’ 캠페인 선포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5년 3월 7일(금)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주최 :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 **식순 :**

○ 사회 : 조현제 공공운수노조 여성국장

시간	내용	발언자
2"	안내	사회자
5"	여는 발언	공공운수노조 김선화 여성위원장
5"	현장발언1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권수정 위원장
5"	현장발언2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편선화 여성부장
5"	현장발언3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이혜민 용산익산지부장
5"	현장발언4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한서교통지회 이예진 지회장
5"	연대발언1	민주노총 권수정 부위원장/여성위원장
5"	연대발언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조건희 상임활동가
3"	기자회견문 낭독	참여단위 2~3인

### **자료 순서 :**

- 붙임1. 기자회견문
- 붙임2. 발언문(공공운수노조 김선화 여성위원장)
- 붙임3. 발언문(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권수정 위원장)
- 붙임4. 발언문(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편선화 여성부장)
- 붙임5. 발언문(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이혜민 용산익산지부장)
- 붙임6. 발언문(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한서교통지회 이예진 지회장)
- 붙임7. 발언문(민주노총 권수정 부위원장/여성위원장)
- 붙임8. 발언문(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조건희 상임활동가)
- 붙임9. 여성노동자에게\_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승무원에게\_운동화를! 온라인 캠페인 선전물 및 사진자료
- 붙임10 2024년 서울시내버스 여성기사 노동실태조사 결과

### 3.8 여성의날 주간

## ‘여성노동자들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 #승무원에게\_운동화를!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문

공공운수노조는 2025년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노동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폭력에 맞서 ‘여성노동자에게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승객의 안전과 승무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불편한 구두 대신 편안한 운동화를! #승무원에게\_운동화를! 캠페인을 시작하고자 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객실 승무원을 비롯해 여객지원 여성 노동자들은 업무 시 굽이 높은 불편한 구두를 신는다. 이는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승무 노동자들의 역할에 비추어볼 때 업무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다. 오로지 사측이 여성 노동자라는 이유로 강요하는 ‘용모 단정’이라는 성별 규범에 따른 규정일 따름이다. 사측의 성차별인 인식과 태도가 복장 규정으로 드러나고 그 결과는 여성노동자의 심각한 건강 침해 뿐아니라 승객들의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 승무노동자들은 장시간 비행시 하루 15,000보에서 20,000보 이상 구두를 신고 일한 결과 족저근막염, 무지외반증,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린다. 항공 승무 노동자들은 수년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며 불편한 구두 대신 안전한 운동화를 신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싸움을 벌여왔다. 변화는 없었다.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옷을, 신발을, 복장을 하지 못하고 ‘여성다움’이라는 성차별적 시선하에 사측이 제공하는 불편한 유니폼과 구두를 강요당하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지난 2019년 12월 21일,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통해 ‘자신의 몸에 대해 결코 자유롭지 못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승무원에게\_운동화를’ 해시태그 캠페인을 진행,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단지 아시아나 대한항공 승무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래 서서 일하는 철도 여성승무 노동자 대부분은 하지정맥류로 고통받았고 산재로 인정받는 데도 오랜 투쟁이 있었다. 결국 오랜 투쟁 끝에 구두를 신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바꿔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등 병원노동자들 또한 투쟁 끝에 편한 운동화, 크록스 등으로 바꿔냈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에서 2019년 1월 여성들에게만 불편한 신발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트윗이 3만 차례 이상 공유가 되면서 #KuToo<sup>1)</sup>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고

1) 하이힐을 신지 않을 권리. 여성들이 일터 등에서 특정 높이 이상의 구두 착용을 권고 또는 강요받고 이를 어길 경우

영국에서도 지난 2015년 5-10cm 하이힐을 신지 않아 무보수로 귀가한 서비스업 직원이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다음 해인 2016년 ‘하이힐 강요 금지’ 청원이 진행된 바 있다. 한국에서는 2018년 제주항공에서 하이힐 의무 착용 규정을 없앴으며 진에어에서도 운동화 착용이 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 노동자에게 강요하고 있는 엄격한 복장규정에 대한 저항행동이 벌어지고 있다. 2022년 스페인의 이베리아 항공사 승무원들은 ‘나는 스튜어디스 바비가 아니다’며 15년만에 유니폼 개편된 후 하이힐 의무착용 규정에 항의하는 청원을 시작했다. 비행중에는 운동화를 신을 수 있지만 공항과 탑승 중에는 여전히 하이힐을 신도록 하는 유니폼 정책에 저항한 것이다.

또한 작년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의 여성버스노동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여성 전용 휴게실이 없다는 응답이 64.3%였으며 여성이기에 무시나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73.8%, 성희롱 성폭력 직간접적 피해 경험이 있다고 52.4%가 응답했다. 일터의 안전 문제 뿐 아니라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휴게실조차 없이 여성버스노동자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몰려있다.

2025년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공공운수노조는 항공 승무 여성노동자들의 문제가 단지 대한항공 아시아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여성노동자에게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승무원에게\_운동화를! 캠페인을 전개한다. 여성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인 안전하게 일할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 2025년 3월 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붙임2. 발언문(공공운수노조 김선화 여성위원장)**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는 메시지를 드려야 마땅한데, 여기 현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들려드릴 이야기나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며칠 전 저는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공공운수노조가 성평등한 일터, 성폭력없는 안전한 일터를 위해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성명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충남 서천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운동을 하다가 일면식도 없는 남자의 흥기에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여성혐오 범죄가 일어나는 사회에서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마치 사람들에게 ‘환상’을 파는 것이 아닌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여전히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꼭 한 달 전, 한국마사회시설관리에서 여성 노동자들에게 성차별적 용모 매뉴얼을 적용한 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남성에게는 ‘단정함’만을 요구하면서, 여성에게는 20개 항목을 세분화하여 머리색상과 스타일, 립스틱 색상, 악세서리 크기와 모양까지 제한한 것입니다.

남성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용모 기준은 철저히 남성 시선을 전제하고 있고, 여성을 동등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인식 말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승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무원이 승객 응대 외에도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와 역할을 생각해 보면 구두를 신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입니다.

노동자에게 업무에 맞는 유니폼을 마련해주고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을 마련해 줘야 우리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제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가 진짜 안전한 사회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성이 마음 놓고 혼자 집 근처에서 운동도 못하는 사회를 세계 어느 누가 안전한 사회라고 할까요? 여성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똑같은 인간입니다.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여성도 인간이라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 말고 좀 더 나아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공공운수노조가 더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 **붙임3. 발언문(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권수정 위원장)**

생휴노조. ‘생휴노조’라고 들어보셨어요? ‘생리휴가노조’의 줄임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이 현장에서 이렇게 불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씁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생리휴가를 신청해도 조합원이 아니면 받기 힘들어서 생긴 말입니다. 휴가를 신청해도 나오지 않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 무급이라도 쉬려해도 조합원이 아니면 사용이 힘들어지다보니 생긴 별칭이 되었습니다. 생리휴가 받게 해주는 노동조합.

여성 다수를 차지하는 객실 승무원의 처우와 관련해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관련 제도의 개선과 적용은 현재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의 휴가제도, 생리휴가 및 돌봄휴가제도, 육아기 단축근무제도, 난임휴가 및 모성 보호제도들이 철저히 무시되거나 도입조차 되어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요청하는 승무원에게 ‘다만 승무원의 업무특성 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합니다.

휴가를 신청한 승무원에게 ‘휴가를 주기 어려우니까 생리휴가를 내면 줄 수 있다’며 생리휴가의 법적 취지에도 어긋난 편법적 사용을 종용합니다.

돌봄휴가를 요구하니 부모님이 봐줄 수 없다는 걸 증명할 부모님 재직증명서와 멀리 살고 있다는 거주지 입증서를 요구합니다.

난임 휴가는 순번을 기다리라는 말도 안 되는 기준들이 난무합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예쁘게 보여야 하는 관행 속에서 뒷전이 됩니다. 단정한 헤어를 위해 스프레이로 단단히 머리를 고정하고, 피부는 환하게 빛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활동적이고 편해야 할 유니폼은 맵시를 뽐내는 용도로 몸을 속박합니다. 신발은 구두 이외에 허용되지 않아 발은 비틀어지고 대륙을 횡단하는 피로도도 가중됩니다. 무지외반증, 척추 뒤틀림, 형태 변형 등은 경중의 차이일 뿐 승무노동자들의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안전하고 편한 작업화를 요구해 왔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성들에게 주어지는 편안한 운동화와 작업화는 여성들에게 선택권조차 없습니다.

최근 들어 더 자주 보고되는 항공 안전사고와 관련해 승무원들의 숙련도와 전문성을 더욱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항공사 객실승무원 지위와 처우는 요구하는 책임에 비해 현저히 열악합니다. 많은 항공사들은 여전히 안전을 최선방에서 책임지는 노동자, 전문성과 숙련도가 필요한 노동자로 객실승무원을 인정하기보다 화려한 외모와 서비스측면을 강조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며 새로운 유니폼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노동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승객 안전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비상 상황에 더 신속하게 대처하고 싶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서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운동화를 당연한 권리로 가져갑시다. 우리는 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선봉의 노동자입니다.

## 붙임4.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편선화 여성부장

대한항공 승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변화, 이제는 시작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항공에서 23년째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여성부장을 맡고 있는 편선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승무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승무원을 꿈꿨을 때, 그리고 21살에 그 꿈을 이뤘을 때, 제 마음은 설렘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2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승무원이 화려한 이미지 뒤에 가려진 힘든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승무원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동 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오히려 승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첫째, 심각한 승무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기내 감염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기내 서비스가 간소화되었고, 이에 따라 만석일 경우 탑승하는 승무원의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당시에는 항공 수요가 급감한 상황이라 만석 항공편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항공 수요가 회복되고 기내 서비스도 코로나 이전과 동일하게 돌아갔습니다. 당연히 승무 인력도 원래대로 복원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승무 인력을 복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3년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가 인력 복원을 요구했을 때, 회사는 “예약 승객에 따른 승무 인원 기준표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표 자체를 회사가 임의로 변경하며, 사실상 승무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기준표보다도 승무원이 부족한 상태로 운항하는 비행편이 하루에도 적게는 50편, 많게는 100편에 달합니다. 이는 명백한 근무조건 불이익 변경이며, 근무조건 불이익 변경의 경우 노사가 합의를 해야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담당 사무장에게 “승무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행할 수밖에 없으니 양해 바란다”는 문자 한 통만 보낼 뿐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운영입니까? 이것이 세계적인 항공사를 표방하는 대한항공의 현실입니다.

승무원이 부족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승무원 한 명당 담당해야 하는 승객의 수가 늘어나면서 기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됩니다. 이미 승무원들이 너무 바빠 보인다, 승무원들이 바쁘

게 움직여 승무원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기 힘들었다는 피드백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상 상황에서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라는 점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내 국적항공사 10곳에서 발생한 기내 불법 행위로 경찰에 인계된 건수가 1,868건에 달한다는 뉴스 보도도 있었습니다. 운항 중 항공기 비상구를 열려는 시도를 하는 사건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응급 상황이나 비상 상황 발생했을 때, 기내 질서를 유지해야 할 때, 승무원이 부족하다면 과연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둘째, 승무원의 유니폼 문제입니다.

승무원의 유니폼은 단순한 회사의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의 업무 환경과 건강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의 유니폼은 몸에 밀착되는 디자인으로 인해 불법 촬영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승객은 2018년 8월 기내에서 이름을 확인한다며 명찰이 부착된 승무원의 가슴을 손으로 찔렀다가 경찰에 인계됐고, 앞서 4월에는 기내 객실에서 승무원의 치마 속을 태블릿 PC 카메라로 촬영한 사람이 적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에 인계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훈방 조치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불법 촬영이 많은 노선에 남승무원을 동승시키거나, 불법 촬영 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기내 방송으로 공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여전히 여성 승무원들은 불법 촬영 피해를 입고 있으며, 대한항공은 실질적인 변화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무원들은 유니폼을 입고 출퇴근해야 합니다.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불안한 환경 속에서 이동하는 승무원들은 범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2018년 국정 감사에서 유니폼의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여전히 몸에 밀착되는 디자인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더이상 승무원의 안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승무원의 건강을 위협하는 신발 문제입니다.

승무원은 장거리 비행 평균 15,000보 이상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신고 있는 것은 여전히 딱딱한 구두입니다. 장시간 착용으로 인해 족저근막염, 무지외반증,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이 만연합니다. 제 아들이 제 발을 보고 “엄마 발이 왜 이렇게 됐어? 아프지 않아?”라고 물었던 순간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제 발은 아파 보였던 것입니다.

승무원들은 단순히 편안함을 위해 운동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 상황에서 승객을

탈출시키고,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여야 하는 승무원들에게 기능성 운동화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여전히 '구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미지보다 중요한 것은 승무원의 건강과 승객의 안전입니다. 대한항공은 승무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운동화를 착용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승무원에게\_운동화를 캠페인을 준비하며 후배들에게 운동화를 신고 일을 하면 어떨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후배들은 너무 좋을 것 같다, 발걸음이 가벼울 것 같다, 생각만으로도 좋다고 했습니다. 승무원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한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과 안전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이 성사되고 유니폼이 변경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대한항공 승무원이자 노동자로서, 그리고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여성부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승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승무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행을 강행하는 것, 승무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니폼과 신발을 강요하는 것, 이는 단순한 복장의 문제가 아니라,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대한항공은 이제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충분한 인력과 함께 운동화를 신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붙임5.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한서교통지회 이예진 지회장**

안녕하세요?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한서교통 이예진 지회장입니다.

저는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울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여성 버스노동자입니다. 대부분 50대의 남성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 소수의 여성버스기사 중 한 명으로서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의 출퇴근길을 매일 함께하는 것은 보람찬 일입니다.

하지만 장시간 버스 운행을 하면서 쌓인 피로가 어깨나 허리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휴식이 필요함에도 그나마 주어진 15분에서 30분 짧은 휴게 시간 동안 차량의 청소업무와 세차, 차량 점검작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거기에 더해 차고지에 들어오기 전에 버스 정보시스템 상으로 운행종료를 찍히도록 지시하여 운행기록상으로는 휴게시간이 15분이지만, 실

제 차고지에 들어와서 다시 운행을 나가는 전까지 실제 휴게시간은 5~10분일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라는 제도에서 버스회사에 기본 이윤 외에도 평가를 통해 추가이윤을 주고 있습니다. 버스회사들은 이 추가이윤을 받기 위하여 회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경력이 짧은 기사들과 여성기사들을 쥐어짜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사정과 상관없이, 휴게시간도 상관없이 운행횟수를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을 통해 이러한 차별과 고충을 이야기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욕설과 여성비하였습니다. 노조 간부로부터 '아줌마'라는 말을 듣고, 비아냥과 반말, 욕설을 포함해 몸을 밀치는 폭력행위까지 당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들어오자 회사는 근로계약서 작성하도록 하고 동시에 한국노총에 보냈습니다. 저는 한국노총 사무실에 가서 다른 노조에 대한 선택권도 없이 노동조합 가입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여성이기에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에 화가 나 어용노조를 탈퇴하고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현장의 이러한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언젠가 불이익처분이나 해고로 이어질까 두려운 것은 저를 비롯한 여성 버스노동자들 모두가 겪는 현실입니다.

회사의 요구가 부당하고 오늘은 도저히 운행을 나가기 어려운 정도의 몸 상태에도 눈치를 보다 보니 생리 기간 중 생리휴가는 말도 못 꺼내고 연차를 냈다가 근무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에 출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동료 중에서는 몸 상태가 나쁜 상황에서도 운행하던 중 화장실 이용이 어려워 물을 아예 마시지 않다 보니 탈수증상으로 괴로워하다가 공황장애가 와서 치료를 받았다는 여성버스기사도 있습니다.

작년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가 진행한 여성 버스기사 실태 조사를 보니 여성 버스기사들이 회사나 한국노총 노조에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회사에 찍혀, 민원이 많고 운행이 까다로운 노선에 배정을 받고, 사소한 사고에도 징계나 무사고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침묵합니다. 이러니 어느 여성 버스기사가 여성휴게실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근무복을 갈아입거나 여러 사생활에 관련된 휴게 및 일상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눈치를 보며 화장실에서, 혹은 운행이 끝난 버스에서 혼자 통화를 하거나 버스 바닥에 주저앉

아 다리를 뺀고 휴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게시설이 있다고 회사는 주장하지만 비좁은 공간에 평균 50대 남자 기사들도 자리가 없어 비둘기처럼 서 있는 공간은 사생활 보호도 어렵고 휴게실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짧은 휴식시간 동안에도 회사의 업무지시가 이어지고 제대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피곤이 누적된 상태에서 매일같이 시민들을 친절하게 맞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고 날씨가 나쁘거나, 때로는 술에 취해 고성과 매너 없는 행동을 하는 시민들로 인해 운행에 방해가 되어도 누구에게도 어려움을 호소할 수 없습니다. 차량 내 탑승한 승객들에게 이야기했다가 도리어 승객의 민원으로 경위서를 요구받았습니다. 불법 주차와 돌발상황에서의 접촉사고에서도 회사에 찍혀 가해자로 몰려 무사고 수당까지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스트레스가 쌓여 장시간 운전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옳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소수인 여성 버스노동자로서, 소수노조의 조합원으로서 우리는 주장합니다. 버스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서울시 버스정책과와 서울시내버스 사업주들의 의견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이러한 현실은 바뀌어야 합니다.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내버스가 초과이윤을 받기 위해 노동자를 쥐어짜는 구조 속에서 경력이 짧은 기사와 여성 버스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사고 발생 위험이 많은 나쁜 노선 배정과 부당한 처우를 감내해야 합니다.

서울시내 버스는 현재 인력난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꿔 더 많은 여성 버스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존엄과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또한 작업복 탈의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여성 휴게실 제공 등 현장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함께 외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 버스 자본을 위한 대중교통 말고 서울시민들을 위한 공공교통을 선택하라!
- 더 많은 여성 버스노동자들의 진입을 위한 처우 개선으로 여성 휴게실을 보장하라!
- 어용노조 말고 노조 선택권을 보장하라! 생리휴가 청구권 사용을 권장하라!

## **붙임6. 전국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이혜민 용산익산지부장**

안녕하십니까 코레일관광개발 용산익산지부장 이혜민입니다. 내일 3월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승무원에게 불편한 구두를 운동화로 바꾸자는 운동을 위한 연대 발언에 나섰습니

다.

우리 승무원들은 열차에서 고객을 안내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업무는 열차를 그냥 돌아다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0km가 되는 KTX에서 승무원들은 돌아다니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 뿐 아니라 열차의 흔들림을 서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역 또는 용산역에서 출발하면 도착역까지 단순히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열차에서 매일 업무를 하며 힘을 주니 다리에 버티는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또한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역사내의 열차 플랫폼은 매우 미끄럽습니다. 구두를 신고 역사내를 이동하거나 이례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뛰어다니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랜기간 업무에 임한 승무원들은 하지정맥류가 발생하고 승무하다 열차 발판에 미끄러져 홈과 열차 사이로 추락하는 산재사고도 발생합니다. 하지정맥류는 경력이 있는 여 승무원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산재로 인정받기까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승무원이 몸이 아파가며 산재로 인정받기 이전에, 구두를 신고 다른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기 보다는, 승무원이 안전사고를 걱정하며 불편하게 업무를 하기 보다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산재 중 본인의 부주의로만 발생하는 사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운동화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측이 어느 정도 제안을 받아들여 지금은 열차 내에서 구두를 신고 승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승무원들의 구두를 운동화로 바꾸는 일은 안전사고 없는 현장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승무원들이 운동화 착용을 하고 안전사고 없는 날까지 같이 연대하겠습니다.

## **붙임7. 민주노총 권수정 부위원장/여성위원장**

---

## **붙임8.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조건희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노동자 건강권 운동을 하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건희 활동가입니다.

앞선 발언에서 이야기해주셨던 것처럼 이번 사안은 굉장히 명백합니다. 업무 시 굽이 굽이 높은 불편한 구두를 신게 하는 것, 불법 촬영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여전히 움직이기도 불편하게 만드는 몸에 밀착되는 유니폼을 강요하는 것. 이들은 일터에 명백히 존재하는, 해결되어야 할 "위험"입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 자본은 구두와 유니폼을 강제하는 명분으로 단정함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으로 미룬 지침이라는 점과 더불어, 자본이 옷과 신발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안까지 노동자들을 통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규탄해야 합니다.

가부장의 얼굴을 뒀 자본주의 사회,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은 사회적으로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흔하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등의 가려진 위험은 항공 노동자 뿐 아니라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학습지 노동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령이 어린 '고객'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수업 시간 내내 사이즈 작은 책상에 몸을 구겨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근골격계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조업공장에서 일하는 한 여성노동자는, 남성 신체 사이즈에 맞춘 옷을 받았습니 다. 험령한 작업복이 기계에 말려들어가 팔을 다칠 뻔한 상황이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단체교섭에서 신체 사이즈에 맞는 옷을 생리휴가 제공과 같이 요구했으나, 사측은 무급 생리휴가로 처리했습니다. 한 여성 건설노동자의 사례입니다. 몸에 맞지 않는 안전띠를 지급 받았고, 이는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자는 더 작은 크기의 안전띠를 요구해 봤지만, 관리자는 제품 확보가 어렵다며 사실상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들은 '흔하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등으로 치부되면서 가려진 위험 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바꿔내고자 투쟁하고 있습니다. 인력충원, 야간노동의 최소화,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한 안전화 및 유니폼의 제공. 이를 비롯해, 자본의 통제를 거부하고 일터를 우리의 몸과 마음에 맞춰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노보연도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붙임9. #승무원에게\_운동화를! 온라인 캠페인 선전물 및 사진자료**

**'#승무원에게\_운동화를!' '여성노동자에게\_불편한 구두 대신 운동화를!' 캠페인  
온라인 인증샷 참여하기**

- 일시 : 3/7~4/28
- 방식 : SNS 및 기타 취합 방식을 통한 참여식 캠페인/ 캠페인 참여 독려 릴스영상 올리기(챌린지)
- 1. 장시간 서서 일하는 승무원에게는 편안한 신발이 필요합니다. #승무원에게\_운동화를!
- 2. 승무 노동자의 건강과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편한 구두가 아닌 #승무원에게\_운동화를!
- 3. 누군가의 눈에 보기 좋은 불편한 구두 말고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승무원에게\_운동화를!
- 4. 장시간 서서 일하는 #여객지원\_여성노동자에게\_운동화를!

<캠페인용 피켓>

<p><b>#승무원에게_운동화를!</b></p> <p>장시간 서서 일하는 승무원에게는  편안한 신발이 필요합니다.</p> <p>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평등이다! 2025년 3.8 세계여성의날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p>	<p><b>#승무원에게_운동화를!</b></p> <p>승무 노동자의 건강과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편한 구두가 아닌 </p> <p>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평등이다! 2025년 3.8 세계여성의날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p>
<p><b>#승무원에게_운동화를!</b></p> <p>누군가의 눈에 보기 좋은 불편한 구두 말고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p> <p>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평등이다! 2025년 3.8 세계여성의날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p>	<p><b>#여객지원 여성노동자에게_운동화를!</b></p> <p>장시간 서서 일하는 여객지원 여성노동자들에게  편한 운동화를!</p> <p>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평등이다! 2025년 3.8 세계여성의날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p>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평등이다!  
2025년 3.8 세계여성의날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승객의 안전과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 #승무원에게 운동화를!

항공과 철도의 승무 및 여객지원 여성노동자들은 승객의 안전과 승무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편한 구두가 아니라 편안한 신발을 착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승무 노동자들이 좀 더 편안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캠페인 참가 방법>**

**#승무원에게\_운동화를!**  
**#여객지원 여성노동자에게\_운동화를!**

- ① 위 해시태그를 붙여서 여러분의 SNS에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 ② 캠페인을 주변 동료와 친구들에게 소개해주세요
- ③ 인증샷 및 손글씨로 지지의 글을 남겨주세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사진 자료>

